

속도제한 '85% 규칙' 찬반 논쟁

85번째 속도 차량 기준... "사고 위험" "도로에 적합" 맞서

도로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85% 규칙'은 현실적일까.

85% 규칙은 1930~40년대 시골도로 연구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차량 100대 중 85번째 차량의 속도를 기준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는 이 규칙이 수십 년간 표준처럼 적용되면서, 실제 도시 지역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매디슨은 "20이면 충분하다" 캠페인을 통해 주거지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췄고, 시애틀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해 심각한 부상 사고가 줄고 평균 주행속도도 낮아졌다.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85% 규칙에 크게 의존하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일부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운전자들의 속도를 기준으로 다시 제한속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전국도시교통공무원연회 제니 오코넬 국장은 "사람들이 빨리 달리면 제한속도가 거기에 맞춰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도로 활동 수준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방고속도로청도 최근 교통 표지판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85% 규칙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했다. 보행자 위험, 사고 빈도, 도로 이용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하지만 운전자 단체는 반대 입장이다. 전국운전자협회 제이 비버 정책국장은 "도로가 시속 45마일 주행에 맞춰 설계됐는데 제한속도를 30마일로 두면 운전자에게 불공정하다"며 85% 규칙이 여전히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상향 흐름은 여전히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시속 55마일로 묶었던 전국적인 속도 제한은 1995년 폐지되었고, 노스다코타 등 9개 주는 시속 80마일을 허용한다. 텍사스 일부 고속도로는 85마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업계 연구기관 IIHS는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때마다 고속도로 사망률이 8.5%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BMW, 전기차로 테슬라에 도전장

주행거리, 출력, 충전속도서 모델3 능가하는 i3 출시 예정

BMW가 자사의 전기차 라인업인 '노이에 클라세'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7년 출시 예정인 i3 모델은 테슬라 모델 3을 직접 겨냥하며 프리미엄 EV 세단 시장에서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BMW 전기차 i3 M60, 사진=BMW

기술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2027년형 BMW i3가 최소 6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탄소섬유 해치백 스타일에서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 세단으로 대대적인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위 트림인 i3 M60 xDrive는 630마력의 출력을 자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의 510마력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제로백 2.9초라는

테슬라의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행 거리 역시 눈에 띈다. i3 40 및 i350 트림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보다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350은 1회 충전으로 약 560마일을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모델 3 롱레인지의 약 360마일 대비 200마일을 앞선다.

충전 속도 또한 강력한 경쟁력이다. BMW i3는 6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300~400kW급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단 10분 만에 최대 217마일을 충전할 수 있다. 이는 테슬라의 250kW 최대 충전 속도와 15분에 175마일 충전 가능 수준을 크게 앞서는 성능이다.

BMW i3는 2026년 7월 양산에 들어가며, 2027년 초 정식 출시될 전망이다.

허츠 중고차 아마존에서 판매



렌터카 업체 허츠가 자사 중고 차량을 아마존 오토스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츠는 공식 웹사이트 신규 페이지를 통해

현재 LA, 달라스, 휴스턴, 시애틀에서 중고차량 판매를 시작했으며, "곧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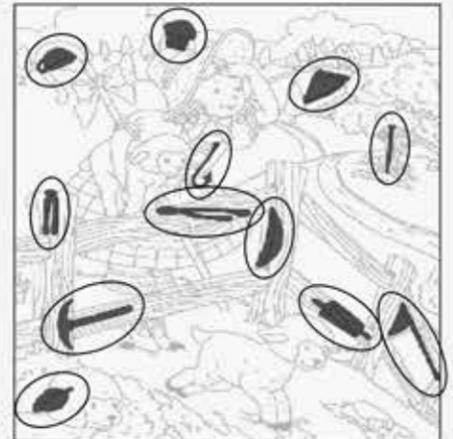
이번 제휴로 허츠는 아마존 오토스의 첫 렌터카 업체 파트너가 됐으며, 포드, 도요타, 쉐보레, 닛산 등 다양한 브랜드의 중고 차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CNBC에 따르면 4개 도시에서 75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20일부터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으며, 허츠는 향후 이를 45개 지역으로 확대해 아마존 오토스의 서비스 범위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허츠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이제 여러분은 처음부터 꼼꼼히 관리해온 차량을 아마존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며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구매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허츠 카세일즈 지점에서 픽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오토스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딜러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차와 '인증 중고차' 판매에 한정됐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